

간호사의 임상 실무 경험

서문자¹⁾ · 손행미²⁾ · 강현숙³⁾ · 권성복⁴⁾ · 김주현⁵⁾
박영숙¹⁾ · 이은희⁶⁾ · 임난영⁷⁾ · 조경숙⁸⁾ · 지성애⁹⁾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3차 병원에서 급성 질환이나 손상으로 위중한 환자의 입원이 증가됨에 따라 임상 간호사는 보다 복잡한 치료과정에서 고도의 간호 기술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간호사는 전인적인 관점에서 입원 시는 물론 퇴원 후까지 연계될 자기 돌봄 간호를 교육해야하는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Taylor, Lillis & LeMone, 2001). 특히 최근 미국이나 국내에서 전문간호사 제도의 도입으로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간호 활동의 행위적 본질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간호의 본질은 간호 행위를 통해 인간을 돌보는 것(Suh et al., 1996)이며 인식적 차원에서 전인간호로서 신봉되고 있다(Suh et al., 2001). 그러나 임상 간호실무의 특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직접 임상에서 경험하는 실무행위가 어떠한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Benner(1984)와

Leininger(1981)는 간호의 역할 및 개념을 규명하였고 Suh et al.(1996)과 Chi(1995)의 간호의 본질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간호 활동과 행위를 중심으로 한 역할과 기능에 관한 것을 간호의 속성으로 제시하고 간호의 본질이나 간호사의 역할을 규명하거나 간호 실무의 속성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가 임상에서 직접 경험하는 간호 실무의 범주가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심층적 탐색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병원 간호 현장에서 간호사가 임상 실무를 통해 경험한 간호 실무의 실체를 질적으로 분석하고 실무 경험의 범주를 기술하여 현재 병원에서의 임상 실무를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앞으로의 임상 간호실무 연구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임상 실무에 대한 경험을 심층분석하여 임상에서 간호 실무 경험의 주된 범주와 간호행위, 간호 실무상의 어려움과 간호사의 경험적 반

1)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 동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3)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부 교수
4)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강사
5) 강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6) 원주간호대학 교수
7)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8) 경원대학교 간호과 교수
9)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투고일 2002년 6월 11일 심사외뢰일 2002년 6월 11일 심사완료일 2002년 8월 31일

응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앞으로 임상 실무 정립과 임상 실무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가 임상에서 실제로 경험한 바를 기술하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연구 참여자는 전국에 소재한 300병상 이상 대학병원의 일반병동에 3년 이상 근무한 일반 간호사로서 간호 실무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14명을 표출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면담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설명한 후 면담 내용의 녹음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연구 참여자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자료수집은 1999년 3월부터 10월까지였다. 심층면담은 주로 병실 내 조용한 장소나 연구자의 방에서 이루어졌으며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하여 차츰 연구 주제에 대한 개방적 질문을 함으로써 반구조적인 면담을 시행하였다. 면담 질문은 '임상실무를 하면서 경험하였던 점이나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이었다. 면담시간은 평균 1인당 1 회 1시간 정도이었으며 평균 면담횟수는 2회이었다. 초기면담은 다양한 범주를 찾기 위해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부족한 면담내용의 보충과 도출된 범주의 정련화를 위해, 그리고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면담을 시행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먼저 녹취된 면담 내용을 연구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필사하였다. 필사된 자료는 행간 분석과 단락 분석을 통해 간호사의 임상 실무 경험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주제를 도출하여 범주화하였다. 또한 임상 실무 경험에 대한 범주들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중심 범주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범주들과의 관계를 비교분석하면서 임상 간호 실무 경험의 중심 범주와 범주들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연구자들은 8회의 그룹 작업을 하여 면담 내용을 분석하고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출된 범주들의 관련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Figure 1>.

III.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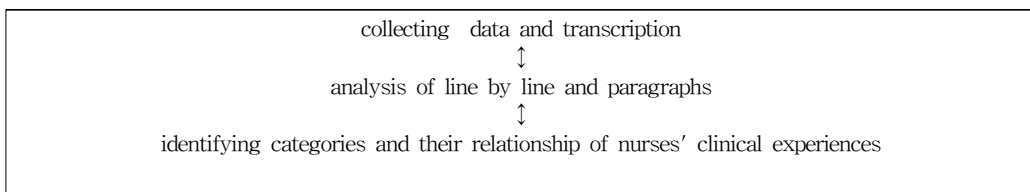
1. 간호사의 임상 실무 경험 범주

간호사의 임상 실무 경험의 범주는 다음과 같이 14개의 범주로 파악되었다.

1) 환자와 함께 함

'환자와 함께 함'은 간호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인정하고 요구를 들어주고 그것에 맞추는 대상자 중심의 간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간호사는 병실 라운딩이나 면담을 통해서 빠른 시간에 간호 대상자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연륜이 쌓일수록 더욱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간호 대상자 중심의 사고를 할 수 있었다. 또한 '환자 함께 함'은 환자를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었다.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도 보여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대상자에게 간호사는 편안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호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여기에는 대상자의 신체적 안위 제공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적 지지를 포함하는 편안감의 제공을 의미하고 있었다.

내가 처음에 왔을 때는 환자들을 보는 눈도 없구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책임적으로 일하는 방향으로



<Figure 1> The process of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했구요. 조금 더 많은 일을 해 보니까요, 환자가 요구하는 것에 맞춰 주는 게 어떤 치유적인 목적 외에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 맞게 치료를 해주고 간호를 해드려요.

2) 간호직에 대한 책임감

간호사가 환자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힘은 간호학 교육과정에서 배우고 익혀온 간호직에 대한 책임감과 소명감이었다. 간호사의 책임감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인내하는 것, 일단 간호사복을 입으면 사명감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고달파도 정신력으로 이겨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종교가 있는 간호사는 없는 간호사보다 간호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스스로에게 불어넣는 신념 다지기를 하고 있었다.

간호사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들에게 소홀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 자신의 일에 책임감 있게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3) 숙련된 간호술 제공하기

간호사는 간호제공시 정확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직관이 필요하였다. 간호사는 원칙을 지켜 정확하게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웠고, 지식과 경험부족으로 미숙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하거나 간호행위의 우선순위 결정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간호사는 기본간호술의 습득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서적이나 집담회, 선배 간호사나 동료의 간호 행위들을 보면서 자기 것으로 체화하는 노력을 하였다. 간호사는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환자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대상자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실수를 근절 시킴으로써 정확하고 능숙한 간호를 수행하였다.

공부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사람들이 실무만 하고 있으니까 이촌적인 것이 부족한 것 같고. 오래 전에 착교 나온 분들이 통신대도 나오고 더 열심히 하세요.

4) 환자 수용하기

간호사는 환자와의 감정을 교류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간호학의 기본인 환자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하였다. 대상자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보아야 하는데, 대상자를 나의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가능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간호사가 대상자를 수용할 때는 대상자의 권리 주장 측면을 고려하고 있었다.

대상자의 입장, 환자의 입장에 서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식제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환자의 입장에서 많이 이해되는 때가 있어요.

5) 환자 교육하기

24시간 환자 곁에 있는 간호사가 대상자를 가장 잘 파악하기 때문에 환자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하고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는 교육 내용은 질병과정, 각종 진단적 및 치료적 검사, 환자의 자가간호 등과 관련된 내용, 간호 행위에 대한 설명 등이었다. 특히 교육에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병원생활과 관련된 제반 설명을 하는 입원 시간간호가 매우 중요하였다. 교육은 대상자에게 올바른 건강관리를 안내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간호 전략이었다.

제가 간호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자에게 설명을 잘 좀 해주어야겠다. 환자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약약에 그 분들이 제가 아는 사람이냐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특히 환자 상황에 맞게... 그때 그때...

6) 정서적 지지하기

간호사가 환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할 때 간호사의 대상자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정서적 지지는 대상자를 편안하게 해 주고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겠다는 목표에서 시행되고 있었는데, 말소리라도 다정다감하게 하려는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간호사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대화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유머의 사용을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 간호사는 멀음을 주는 간호사, 이래가지고 다른 간호사들은 약간 다르다고 말씀들을 하신 때라던지, 또 개인적인 얘기들 있죠 일하다가 보면 환자들의 가정적인 면이나 심리적인 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어렵고 중재하기 어려운데 가끔 그런 부분에 involve했을 때 자기 표현을 다하면서 너무 고마워 하신 때

7) 환자 옹호하기

간호사는 대상자의 옹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의사와 환자 사이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였다. 또한 간호사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진료과정에서 대상자가 경험하게 되는 불편감과 불만을 들어주고 해결해줌으로써 참 중재자가 되고자 하였다.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 간호의 역할이라는 생각으로 환자에게 최선의 것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환자에게 최선인가 아니면 그 사람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것인가 때론 착하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싸우고서라도 환자한테 좋은 것을 주어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

8) 자기 되돌아보기

간호사는 간호사직을 수행하면서 업무내용과 실무에 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별 생각없이 수행했던 업무를 되짚어 보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간호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함으로써 간호직을 계속 유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자기 스스로 어떤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 깨닫게하고 스스로 뭔가가 안 좋을 때에는 혼자서 집에서 다시 한번 반성도 해보고

9) 인간관계의 어려움

간호사가 겪는 인간관계의 갈등은 동료, 의사, 환자 및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것들이었다. 간호사는 힘든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료로부터의 스트레스와 의사, 보호자와의 불편한 관계로 갈등을 느꼈다. 선임 간호사는 선임 간호사대로, 신규 간호사는 신규 간호사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요구되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간호사는 의사와 갈등을 느끼면서도 환자를 위해서 의사와 잘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간호사는 의사를 수평적인 관계인 동료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의사들은 간호사를 수직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의사로부터 무시당했거나 거절당했던 경험에 있는 간호사는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간호사-의사 관계가 수직적인 인간관계인 것 같고, order를 확인할 때는 의사가 거스리지 않도록 마음 상하지 않도록 아주 신중하게 말을 잘 골라서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의사가 order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상당한 것도 일당은 지시에 따르기를 바랍니다.

10) 업무과다

간호사는 업무과다와 관련된 제반의 문제들로 어려움을 느꼈다. 최소의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항상 여유가 없고 바빴다. 그래서 간호사는 환자에게 충분히 관심을 갖지 못하고 간호제공시 보호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으며, 점심시간도 없이 일을 한다거나 교대근무가 힘들 등으로 소진되었다. 또한 간호사가 느끼는 이론과 현실의 차이는 실무 현장의 열악함과 무력감 그 자체였다. 이 결과 간호사는 간호업무를 습관적으로 무감각하게 수행하였고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였다.

간호사가 바쁘다고 하면 핑계 같지만 정말 바쁘거든요. 입원하신 분들 모두가 그런 말씀들 하세요. 딸 있으면 간호사 시키지 않겠다고 하세요.

11) 간호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간호사가 느끼는 간호직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다. 간호 조직의 인사나 근무지 배정의 무원칙성, 조직차원에서의 지지와 배려의 부족 등에 회의를 느꼈다. 또 간호사는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고 간호직의 사회적 이미지가 낮기 때문에 속상했다. 간호사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이는 보수나 승진과 같은 내부적인 문제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업무와 관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이 간호사에게 있다는 대우를 받았을 때, 특히 환자나 보호자들이 의사에게 대하는 태도와 간호사를 대하는 태도의 이중성에서 많은 회의를 느꼈다. 그러면서도 간호직은 직업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사회의 인식 이전에 자신의 간호직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저희하고 관련된 일이 아닌데 저희가 직접 환자 곁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받아서 저희가 소환을 해야되고, 거기서 “누가 잘못했어?” 하고 끝나지는 못하잖아요. 그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송합니다,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해도 그런 것이 전혀 통하지 않고 딱 욕하는 사람이 대개 많거든요... 사회적 지원나 그런 것들이 일부 사람이 보기에 의사를 바라보는 눈하고 간호사를 바라보는 눈하고 차이가 있고...

12) 업무에 대한 자신감 결여

간호사는 환자에게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임으로서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모습은 그렇지 못함을 발견하였다. 지식의 부족, 부정

확한 간호수행, 간호사의 책임회피나 책임한계, 그리고 업무 수행 시 자율성 결여를 느낄 때 자신감이 없어졌다. 그리고 아무 것도 대상자에게 해 줄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무력감을 느꼈다.

환자 파악 업무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갈수록 무지해갑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내가 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돼잖아. 자신감이 없어서 선뜻 못하게 되고. 의사들은 뭐든지 자신있게 합니다.

13) 열악한 근무조건

간호사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과다 뿐 아니라 자신들이 근무하는 병원과 병동의 환경과 조건이 열악하다고 느끼면서도 참고 지내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특히 병원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질병이나 기타 위협에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다루는 병원에서 간호사들의 건강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격리방 이거든요. 격핵병식이기 때문에. 격핵에 격인 간호사도 3명이나 있었어요. 다른 병동으로 rotation하고 그런 것도 처치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많았고, 굉장히 위험에 노출된 상태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장이 안 되는 문제들...

14) 간호직에 대한 자부심

간호사는 환자와 감정이 이입되고 간호문제를 해결해 주고 열심히 간호를 제공한 결과가 있을 때 보람을 느꼈다. 간호사는 환자의 질병상태가 호전되어 고맙다는 소박한 말 한마디에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는 것 같아 기뻐했다. 또한 간호업무가 힘들지만 나름대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때도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할 수 있었다. 간호사가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는 것은 병원 생활에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되었다.

cpu 재보고, 환자 체중이랑, 환자 symptom assess해서 저희들이 noti하고, 그러면 그 환자에 대한 오더나 중재가 달라지고 그랬을 때... 나도 이 환자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있구나... 자율권이라고 해야 되나... 상당히 어렵고 간호사들도 힘들지만 그나마 전문성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 간호사의 임상 실무 경험의 개념화

이상에서 파악된 간호사의 임상 실무 경험은 환자에게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사가 부딪치면서 경

험했던 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를 잘 보여 주었다. 심층면담 내용 속에 녹아져 있는 임상 간호사의 경험의 중심 범주는 ‘환자와 함께 함’이었고, 간호직에 대한 책임감은 간호사의 기본 신념으로 파악되었다. 간호사가 환자와 함께 하기 위해서 숙련된 간호술 제공하기, 환자 수용하기, 환자 교육하기, 정서적 지지하기, 환자 옹호하기, 자기 되돌아보기 등의 범주들이 주요한 임상 실무 전략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인관관계의 어려움, 업무과다, 간호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업무에 대한 자신감 결여, 열악한 근무조건, 부당한 대우 등의 범주들은 간호사가 임상 실무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파악되었으며 간호직에 대해 자부심의 범주는 임상 실무의 결과로 파악되었다.

이 중심 범주를 중심으로 도출된 범주들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환자와 함께 함’은 환자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환자의 요구에 맞추어주는 맞춤형 간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것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 측면까지 고려된 전인적 접근을 하는 것이었다. 즉 간호사가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하고 대상자의 입장에서 생각함으로써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는 정성스러운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여 간호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간호학 교육과정과 개인의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해 형성된 간호사의 간호직에 대한 책임감은 환자와 함께 함에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실제 간호 실무를 수행하면서 간호사는 내외적인 요인으로 많은 갈등을 하였다.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쳤으며, 병원이란 세팅에서 형성된 복잡한 인간관계로 마음 고생을 하였고, 사회의 부정적인 간호직에 대한 이미지로 임상 실무에 회의를 느꼈다. 또한 간호사는 업무를 자신감 있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 자신의 건강조차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열악한 근무조건,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부당한 책임 전가 등으로 소진되었다. 그러나 간호사는 나름대로 환자와 함께 하기 위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매사에 숙련되고 정확하게 간호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환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자 했고, 간호의 많은 부분에서 요구되는 설명과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간호사들은 환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한 간호 내용에 대한 숙고와 간호에 임하는 자신에 대한 숙고를 통하여 환자와 함께 하기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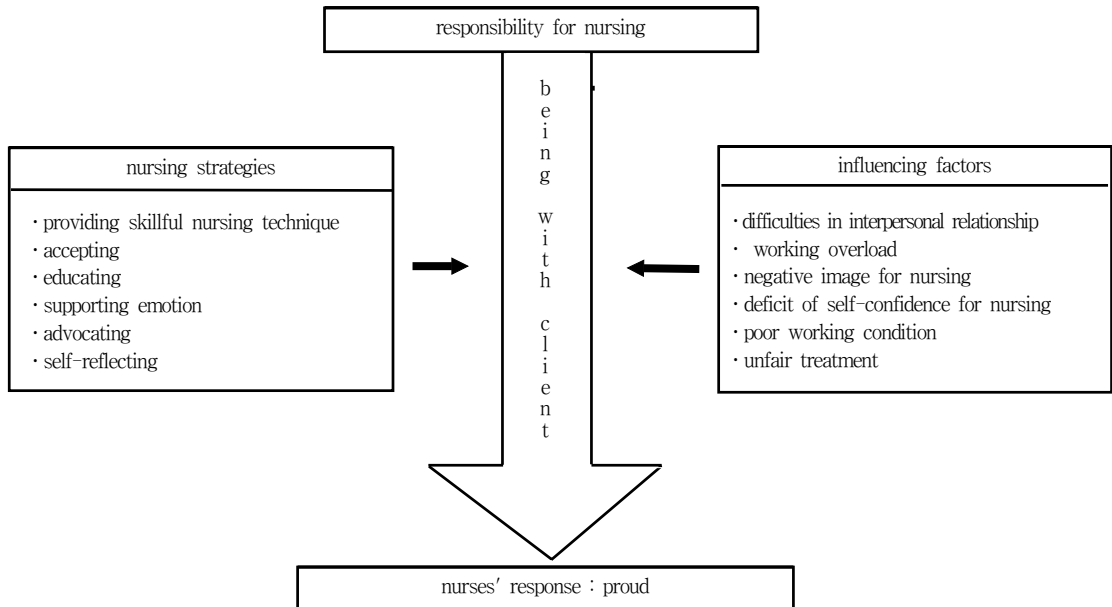
긍정적인 전략적 접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간호사는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춘 전문직 간호사로서 보람과 자부심으로 간호직을 계속 수행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Figure 2>로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사의 병원에서의 실무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면담 자료를 통해 임상 간호실무의 실체를 기술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임상 간호 실무의 중심 범주는 '환자와 함께 함'이었다. '환자와 함께 함'은 '함께 있는 것'(Aamodt, 1986), 환자의 건강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환자와 함께 있는 것의 '옆에 있어주기'(Han et al, 1997) 등의 개념과 일치하였다. Benner(1984)는 임상 간호 실무 영역의 분류에서 '환자와 함께 하기'를 돕는 역할의 하나로 확인하였다. 또한 '환자와 함께 한다'는 행위는 한국적 간호의 본질 탐색 연구(Chi, 1995)에서 나타난 간호의 다양한 본질 중 간호의 행위적 속성을 잘 반영하였다. 즉 '환자와 함께 함'은 돕는 행위, 돌봄, 반응, 보호, 지지, 관찰, 편안하게 함, 문제해결, 조정, 교육, 자극 등의 행위와 내용이 일치한다. 그러므로 '환자와 함께 함'은 간호의 본질인 돌봄의 하위 개념으로 본 연구와 기타

연구들을 통해 돌봄 개념의 일반화를 얻었다고 생각된다. '환자와 함께 함'은 모든 환자와 간호사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간호 활동의 핵심 요소이자 개념으로 중요한 간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 간호 실무 지침에 '환자와 함께 함'에 대한 간호사의 능력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 간호 실무에서 간호사의 친절한 태도, 신속하고 정확한 일 처리, 창의성, 전문성과 함께 강한 책임 의식은 매우 중요하다는 Jeon, Kim & Byon(1987)과 Kwon(1999)의 연구결과는 '환자와 함께 함'을 실천하기 위해서 책임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가 임상 실무에서 간호 중재로 사용하는 전략은 '숙련된 간호술 제공하기', '대상자 수용하기', '대상자 교육하기', '정서적 지지하기', '대상자 옹호하기', '자기 되돌아보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무 전략은 Leininger(1981)가 언급한 안위, 지지, 동정, 공감, 직접적인 도움행위, 접촉, 의존, 감시, 보호, 건강유지, 건강교육, 건강상담 등의 간호개념과 유사하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중재 전략은 Benner(1984)가 제시한 간호 실무 영역인 돕는 역할, 교육과 지도, 진단과 감독, 응급상황 간호, 치료적 중재와 처방의 수행 및 감독, 간호 및 치료의 질 감독 및 보장, 조직적인 역할의 유능한 수행 등과 대부분 일치하였다. '숙련된 간호술 제공하



<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on nurses'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기'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환자 또한 매우 중요한 간호의 요소로 보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정확한 간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간호를 제공해야 함이 확인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임상 현실에서 간호사가 원칙대로 정확한 간호를 제공하기 어려운 응급상황이 많았으며 또한 간호행위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 조직에서 간호 실무 개선 방법을 개발하여 간호사에게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자와 감정을 교류하고 인격적 만남을 통한 긍정적 관계 유지를 의미하는 '대상자 수용하기'는 미국간호협회(1973)가 간호와 간호 실무라고 공포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간호사와 환자의 협력을 통하여 간호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그리고 Kim(1993)의 주장대로 간호의 목표 설정에서 환자의 문제와 그 문제 해결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상자를 수용하여 잘 이해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간호사의 '대상자 교육하기'는 대부분 질병과정, 각종 진단적 및 치료적 검사, 환자의 자가간호 등과 관련된 내용, 행위에 대한 설명 등이었다. '교육하기'는 신규 간호사의 직무분석에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 업무로(Kim et al, 2001) 이는 간호사의 경력에 따라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실무 영역으로 생각된다.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어야겠다는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정서적 지지하기'를 위해서 대화술의 개발이 중요하며, 특히 유머의 사용은 좋은 간호 중재 전략이다(Kim, 1995).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신규 간호사 직무 분석에서(Kim et al, 2001), 한국의 간호사들은 미국에 비해 생리적 통합성 유지 간호가 심리·사회적 간호나 안전하고 효과적인 간호 환경 조성 간호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간호사는 임상 실무를 배우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주로 직접적인 신체 간호에 치중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 의료 소비자들의 안전과 환경 및 심리·사회적 측면의 질을 중시하는 간호 목표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사는 '대상자 옹호하기'를 매우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지만 의사와 환자의 중간 위치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옹호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 수행을 위한 병원 간호 환경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간호사는 '자기 되돌아보기'를 통하여 스스로의 행위를 반성함과 동시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간호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확립하고 재정비함으로써 간호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다. '자기 되돌아보기'는 Dewey

(Clarke, James. & Jelly, 1996)가 설명한 어떤 신념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이며 신중한 고찰인 성찰(reflection)과 유사하다. 비록 간호이론을 합리적으로 적용한 간호 행위가 아닐지라도 개개인의 간호사는 간호에 대한 자신의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간호사는 단순히 타인을 흉내내거나 혹은 어떤 권위 아래서 행동하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Hwangbo & Choi, 1978). 그러나 간호 실무 상황에서 간호사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업무과다, 간호직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 업무에 대한 자신감 결여, 열악한 근무조건, 부당한 대우 등의 요인으로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병원 간호 조직의 문화적 특성을 살펴본 Kwon(1999)의 연구와 본 연구 결과가 일치하였다. 간호사는 자기 반성과 창조성을 통해 간호를 예술화시킴으로써 습관화와 소외 등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Kim, 1993). 즉 간호 실무 향상을 위해서 간호사의 갈등 요소를 제거하고 자기 진작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간호 실무의 향상은 간호 프로토콜이나 경직된 간호 조직보다는 간호사 각자의 감각을 키워주는 용기와 부드러운 반응을 유도하는 자애로운 간호 조직 분위기가 요구된다(Kitson, 1987).

끝으로 본 연구 결과는 구체적인 다양한 임상 실무 행위에 대한 간호사의 관심 유발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호 지도자가 임상 실무 발전을 위한 전략 확립과 간호사나 학생 간호사 교육 시 임상 실무 현상의 인식과 이해에 실제적인 기초자료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가 임상에서 경험한 실무의 실체를 확인하고 임상 실무 정립과 미래지향적 임상 실무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행되었다. 전국의 300병상 규모 이상의 3차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14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사의 임상 실무 경험의 중심 범주는 환자의 개인적 특성을 인정하고 요구를 들어주고 그것에 맞추는 대상자 중심의 간호를 제공하는 '환자와 함께 함'으로 파악되었다. 간호사들이 환자와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동기는 간호학 교육과정에서 배우고 익혀온 간호직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간호사가 환자와 함께 하기 위해 사용하

였던 전략으로는 숙련된 간호술 제공하기, 대상자 수용하기, 대상자 교육하기, 정서적 지지하기, 환자 옹호하기, 자기 되돌아보기 등이었다. 반면에 간호사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업무과다, 간호직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이미지, 업무에 대한 자신감 결여, 열악한 근무조건, 부당한 대우 등의 요인들이 환자와 함께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간호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환자로부터 인정을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간호직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속 간호 실무를 실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간호사가 경험하는 임상 실무의 문제점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2. 병원의 임상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실무 경험을 분석적으로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amodt, A. (1986). Discovering the Child's view of alopecia: Doing ethnography. In P. Munhall and C. Oiler(eds.). *Nursing Research: A qualitative perspective*(pp. 163-172). Norwalk, Conn: Appleton-Cintury-Crofts.
- Benner, P. (1984). *From novice to expert*. Menlo park : Addison-Wesley Co.
- Chi, S. A. (1995). The Nature of Nursing and Life Style of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2), 285-324.
- Clarke, B., James, C., & Kelly, J. (1996). Reflective Practice. *Int J Nurs Stud*, 33(2), 171-180.
- Han, K. J., et al. (1997). *Nursing Intervention*. Seoul :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Hwangbo, S., & Choi, Y. H. (1978). *The Essence on Nursing*. Seoul : Sumunsa.
- Jeon, S. C., Kim, S. C., & Byon, C. J. (1987). *Nursing Philosophy Ethics*. Soomumsa, Seoul.
- Kim, D. O., et al. (2001). The Estimate on Basic Competence Level of Hospital Nurse Beginner by Job Analysis. *Korean Nurses*, 40(2), 67-82.
- Kim, H. S. (1993). Response to Nursing as Aesthetic Experience and the Notion of Practice. *Scholarly Inquiry for Nursing Practice : An International Journal*, 7(4).
- Kim, H. J. (1995). *Effect of humor video tape on an anxiety, depression and coping of the imparied mobility patient*.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 J. (2000). Future for nursing discipline : Global perspective. *J Korean Acad Nurs*, 30(5), 1099-1110.
- Kitson, A. L. (1987). Raising Standards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2, 321-329.
- Kwon, S. B. (1999). *A Study on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in Hospital Setting*.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Leininger, M. (1981). *Caring : an essential human need*(Proceeding of the three national caring conferences). Thorofare, New Jersey : Charles B. Slack Inc.
- Suh, M. J., Kim, H. S., Kim, K. S., Kim, K. B., Sung, O. H., Lim, N. Y., & Ju, H. J. (1996). A study on the nature of nursing as perceived by clinical nurses. *The Korean nurses*, 35(1) 66-80.
- Suh, M. J., Kim, H. S., lee, e. H., et al. (2001). Investigation o f espoused theories in nursing practice. *J Korean Acad Adult Nurs*, 13(1), 53-69.
- Taylor, C., Lillis, C., & LeMone, P. (2001). *Fundermentals of nursing*(4th ed.). Lippincott.

The Nurses'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Suh, Moon-Ja¹⁾ · Son, Haeng-Mi²⁾
Kang, Hyun-Sook³⁾ · Kwon, Sung-Bok⁴⁾
Kim, Joo-Hyun⁵⁾ · Park, Young-Sook¹⁾
Lee, Eun-Hee⁶⁾ · Im, Nan-Young⁷⁾
Cho, Kyung-Sook⁸⁾ · Chi, Sung-Ai⁹⁾*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scribe qualitatively the entities of nurse's experiences in general hospitals and to suggest basic data guiding research on developing Standards of clinical nursing practice in Korea.

Method: Fourteen nurses working at general hospitals with over 300 beds in Seoul were interviewed in-depth until saturation using tape-recorders and transcription.

Result: The central theme of clinical nursing practice experienced by subjects was "being with clients" that means accepting client's personal

character, solving client's needs and providing client-centered nursing. A also "being with clients" was felt to be the responsibility of nurses which was learned from their nursing schools. The nursing strategies performed in order to be with patients were proving skillful nursing techniques, accepting, educating, emotional support, advocating, and self-reflecting, the subjects experienced somewhat problematic affects such as difficulti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work overload, negative image of nursing, deficit of self-confidence for nursing actions, poor working conditions, and unfair treatment. Nurses at the hospital practiced with pride when they felt that they were accepted by clients.

Conclusion: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analysis problems in clinical practice and the comparison of nurses'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with nurses' experiences in various settings.

Key words : Nursing, Practice, Experience

1)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2)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

3)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 Hee University

4) Part-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 Ang University

5)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6)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ju College

7)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8)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n College

9)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 Ang University